

# 1990년대 신세대의 의복 정숙성에 관한 연구

강 경 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A Study on the Clothing Modesty of New Generation in 1990s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1. 3. 22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feminine modesties expressed in the clothes of women's college students in 1980s and 1990s, and to find out the social cause of the change of modesty by reference data.

Korean women's college students in 1980s considered feminine modesty very important in the selection of clothes but students in 1990's had quite different attitudes. The major cause of this change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values in clothes were diminished in 1990's. The main cause of different values in 1980s and 1990s is the rapid social change of Korean society in this period. The concrete factors of changes were the change of authoritarian aesthetic values and the positive orientation to diversity individuality sensibility and sexuality.

Key Words : Modesty, Authority, Diversity, Individuality, Sensibility, Sexuality,  
정숙성, 권위성, 다양성, 개성, 감각, 성의식

### I. 서론

의복은 복합적인 동기의 산물이다. 의복착용의 동기를 논할때 의복의 정숙성과 심미성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정숙성과 심미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심미성과는 달리 정숙성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sup>1)</sup>

White<sup>2)</sup>는 인간의 행동이란 문화에 대한 반응 또

는 함수(function)적 결과이며, 따라서 문화는 독립 변수이고 행동은 종속변수라고 하였다. Durkheim도 인간은 사회의 통제와 규제의 산물로서 도덕성이라는 것도 실은 개인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sup>3)</sup> 이러한 사실은 실증적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982-3년에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미적인 측면은 문화간에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숙한 측면은 문화권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정숙성 기준이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에 있어 서로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년대 한국여대생의 의복행동에서는 정숙성을 가장 중시하였다.<sup>4)</sup> 이는 한국 문화의 보수적인 규범이 의복행동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도 한국 여대생들은 의복선택에서 정숙성을 중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이라는 동일한 문화권속에서 살고 있지만 80년대와 90년대는 많은 상황적인 차이가 있다. 그 동안의 사회변화를 생각한다면 의복에 대한 정숙성도 변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의복스타일은 80년대 초에 있었던 의복과 비교하면 정숙성에 대한 규범에서 상당히 일탈된 것이다. Alexander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황의존적이며 집합적으로 구조화된 환경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sup>5)</sup> 그러므로 사회구조와 구성원의 의식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의복에서의 정숙성표현도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sup>6)7)</sup>를 통해서 의복의 정숙성을 개인의 동기인 욕구나 자아실현 즉 미시적 행위차원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사회)에서는 규명되지 않아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90년대 들어 70년대 출생한 젊은이를 신세대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의복에 대한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에 찬반 양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신세대의 의복행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즉 같은 세대의 의복행동도 개인의 성격, 가치, 계층, 가정환경변인등에 따라 다르므로 꼭 동질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즉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20대에 이른 한국사회의 젊은이라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일정한 범위의 잠재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경험은 의복을 통해 표현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로 불리는 90년대의 여대생(19-24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에서의 정숙성 개

념이 80년대 초 여대생들이 지녔던 정숙성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정숙성행동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방법만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의복에서의 정숙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사회학, 심리학, 의류학, 월간지, 신문등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90년대 신세대 여대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행동은 80년대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가?

2) 90년대 신세대 여대생의 의복 정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세대의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90년대 들어 갑자기 신세대의 옷차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왜 이들의 옷차림이 문제가 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들 젊은 세대의 의복을 통해서 그 이전세대와 다른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어떤 세대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이 이들이 착용하는 의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 1. 세대개념

우리는 요즘 '신세대주부' '신세대직장인' '신세대감각' '신세대패션' '신세대문화' 등 신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세대'의 개념은 '새로이 출현한다(genos)'라는 희랍어의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K. Mannheim<sup>8)</sup>은 세대개념을 "동일한 역사,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일정한 범위의 잠재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에는 어떤 일정한 행위, 감정,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경향이 내재한다고 하였다. 박재홍<sup>9)</sup>은 세대개념을 역사, 문화적 경험의 공유에 기인하여 유사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 동시기 출생집단(birth cohort)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역동

성을 포착함에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며 어떤 연령범위를 신세대로 규정할 것인가? 신흥종합연구소 사회문화팀은 한국의 세대를 뉴키즈세대(10대), 약관세대(20대), 베이붐세대(30대), 뉴그레이세대(4. 50대)로 나누고 약관세대인 20대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나 80년대의 중반에서 90년대에 걸쳐 20대를 보내고 있는 세대로 보았다.<sup>10)</sup> 박재홍<sup>9)</sup>은 편의상 신세대를 197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 연령의 면에서 15-24세 가량의 젊은이로 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신세대는 '90년대 중반, 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집단이 아니고 특수한 조건속에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로, 젊은이를 통칭하는 연령상의 구분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신세대의 성장배경

1990년대 한국의 신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세대가 축적해놓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첫 세대<sup>11)</sup>라는 점에서 그 성장배경이 기성세대와는 아주 다르다. 신세대들의 성장기는 9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상대적으로 우리사회가 민주화·개방화·자유화되는 시기와 일치된다. 이들 세대들은 핵가족화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이 부모세대들과 사고방식이나 행위양식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부모들이 비교적 근대적 교육을 받았고, 4.19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이 고양된 세대이므로 그들 자신을 억눌러왔던 권위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자녀들을 묶어두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준비시켰다는 점<sup>12)</sup>에서 이들 신세대들은 유교적 문화,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서구적 문화와 근대적 가치관에 익숙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83년 교육부의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조치로 인해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청소년시기부터 무채색으로 일관된 획일적인 복장에서 탈피하여 자기자신의 개성을 표현 연출할수 있는 혼련기간을 갖게 되고 패션에

대한 안목이 형성되었다. 이미 청소년시절 10대의 소년기에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범지구화 감각을 익힌 세대로, 뉴미디어 즉 위성방송, 영화, TV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출판물들의 국제적 유통, 전화 및 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정보 교류등에 익숙한 세대이다.<sup>9)</sup> 특히 컬러 TV의 출현은 무채색에서 유채색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의복을 비롯한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다양화, 색채화, 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89년 1월부터 실시된 국내인의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을 좀 더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권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열린 사회로의 개방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1989년 수입자율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문화부문의 범지구화는 변화의 물결에 가장 잘 적응하고 나아가 그 변화를 선도하는 세대로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 유지에 압력을 가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 3. 신세대의 특성

잉글하트 교수(1990년)는 한국을 43개국 가운데 세대간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하였다. 즉 개인의 자유, 풍요, 남·여 역할 등과 같은 탈물질주의 지표에 대해 세대간 격차가 크며 특히 신세대들은 개인적 자유나 평등, 삶의 질 같은 무형지표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반해 기성세대들은 그 반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1)</sup> 한완상<sup>13)</sup>은 이른바 X세대로 불리는 90년대의 신세대는 현세주의, 감각지상주의, 자기중심주의, 가치관 상실의 당연시 등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70년대의 청년문화의 퇴폐성을 보는것 같다고 비판하였다. 김영모<sup>14)</sup>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세대가 사회의 엘리트로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많은 문화적 갈등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학회의 세대문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성세대들은 보수적, 권위주의적이며 고집이 세지만

근면 검소하고 참을성이 많고 희생적인 반면에 젊은 세대는 이기적, 낭비적이며 버릇이 없으나 진취적, 개방적이고 영리하다고 밝혀졌다.<sup>12)</sup> 또한 박재홍<sup>15)</sup>은 이들 젊은층이 그들 세대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주의, 물질주의, 낭비성향, 일 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특성 등을 소비지향적으로, 이기주의, 다양성, 개방성, 자율성추구 등의 탈획일주의, 자유분방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개인지향적 특성으로, 권위주의적 인간관계, 전통적 예절이나 격식, 권위주의적인 통제에 대한 저항과 거부 등을 탈권위적인 특성으로 묶어 세가지로 범주화시키고 이들 특성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신세대들의 특성은 삶의 목표나 방식에 있어 한국사회의 기성가치관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롭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체계에 도전하고 저항하려는 신세대들의 '탈권위주의'는 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특성들은 기성세대들의 생산지향적, 집합지향적, 권위지향적 특성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한국 신세대의 복식특성을 연구한 염혜정·조규화<sup>16)</sup>는 1980년대 신세대들의 특성을 감성주의, 탈권위주의, 양극화 현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90년대 신세대의 특성들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개방화되고 자기의 감정표현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세대특성들은 복식에서도 반영되어 표현될 것으로 본다.

#### 4. 복식의 특징(1980-90년대)

복식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사회안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념이나 가치관 등은 의복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0년대 초 들어 baby boom 세대들이 패션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상징을 의미하는 의상(big & loose, Tailoringlook)들이 출현하였다. 여기에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젊은층의 복식은 보다 더 보편화되었고, 개방화, 국제화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염혜정·조규화<sup>16)</sup>는 80년대의 복식을 그 당시 사회, 문화적 특징과 유행의 흐름에 의한 3기의 전개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대두기(1980 - 82년)에는 케쥬얼웨어가 일반화되며 고급 기성복의 용도도 다양화되는 의식이 자리잡았고 성장기(1983 - 86년)에는 뉴 웨이브인 메니쉬 룩의 유행으로 복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다양화기(1987 - 89년)에는 표현의 다양화가 시도되면서 소재와 색상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미 80년대 (후반)의 젊은층들은 의복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입는다>는 차원에서 아니라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 맹위를 떨쳤던 테마중의 하나는 에콜로지를 들 수 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어떤 특정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의 모든 유행아이템이 뒤섞여 나타나는 등 세계 패션의 흐름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혼합되어 복합적인 특징을 띠는 가운데 다양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에콜로지가 주요 테마로 장식을 가능한 절제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여성미를 강조한 미니와 레이어드 룩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반모드주의 혹은 모드파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경향도 90년대의 새로운 특징으로 21세기의 패션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였다. 기존의 틀과 격식, 특히 <평범한 것은 패션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선민적인 패션인식을 깨부수고 <가장 최소한의 옷> <비모드적인 옷>을 추구하는 반문명적, 탈형식주의 경향이 자연에서의 회귀심리와 맞물려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sup>17)</sup>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복식에서도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씨-스루의 유행경향으로 나타나고, 또한 성의 상징이 되는 인체부위를 노출·은폐함으로써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섹시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신체노출의 극대화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드리프가 출현해 허리는 물론 배꼽을 드러내었다. 기성세대는 이를 외설적으로 보기 때문에 TV 매체와 여성복, 란제리 스타일 바람, "속옷 같은 겉옷" "노출강조"<sup>18)</sup> "준배꼽 티/ 핫팬츠" "속치마 같은 드레스" "이색 패션이 거리를 누빈다"<sup>19)</sup>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 한동안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종래의 반바지는 짧아도 가랑이가 있었으나 가랑이가 없는 팬츠(속옷)의 형태로 일상

복화되어 팬티와 반바지의 경계가 없어지는가 하면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여성속옷의 걸옷화가 진행되었다. 즉 의복을 신체에 밀착시켜 착용하므로써 속옷과 걸옷이라는 구분의 개념을 파괴하였고,<sup>20)</sup> 내부를 외부로 나타내는 인프라(infra)현상에 의한 노출적 해체는 브레지어, 콜셋, 슬립, 페티코트의 노출인 란제리 룩, 그리고 심지, 안감, 솔기 등 구성법의 노출로 나타났다.<sup>21)</sup> 이와 같이 속옷의 걸옷화 유행 즉 속옷이나 내부구조의 노출은 서양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요즘 신세대들은 “멋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멋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남의 시선을 걱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게 우린 훨씬 더 좋은데요”<sup>22)</sup>라고 말할만큼 그들은 남과 다르게 싶은 차별화욕구와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세대의 복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욕구를 거부하지 않고 의복을 통해 나타내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표현으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층의 사회적 욕구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의 전통적 의복규범을 거부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의복에서 정숙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 Ⅲ. 연구방법

본 논문의 주제인 정숙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실증적 조사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을 병행하려 한다.

#### 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80년대 자료는 1983년, 10-11월 사이에 조사하여 441부중 420부를 사용하였고 1990년대 자료는 1995년 11 - 1996년 3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440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의복선택행동 척도인 정숙성·심미성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0년대에 사용한 문항을 1990년대에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10문항씩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복선택행동척도인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의 신뢰도 계수(검사-재검사)는 80년대에 각각 .693, .633으로 나타났다 90년대는 각각 .654, .621로 나타나 연도별로 신뢰도 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숙성·심미성 각 문항의 점수 분포는 10-50점 사이이다. 정숙성·심미성 문항의 점수에서 5단계의 중앙치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30점을 기준 점수로 정하였다.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을 각기 정숙성·심미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양집단에 중복된 경우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정숙성 집단이 216명 심미성 집단이 204명이었고, 1990년대에는 정숙성 집단이 209명 심미성 집단이 231명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1980 - 1990년대에 걸쳐 시대변화가 의복의 정숙성과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80년대에 비해 90년대의 의복에서 정숙성이 변화된 연유를 밝히기 위하여 정숙성 행동에 관련된 여러분야 즉 사회학, 심리학, 의류학, 신문 그리고 월간지에 나와있는 스트리트 패션<sup>33-35)</sup> 등의 관련자료를 활용하였다.

### Ⅳ.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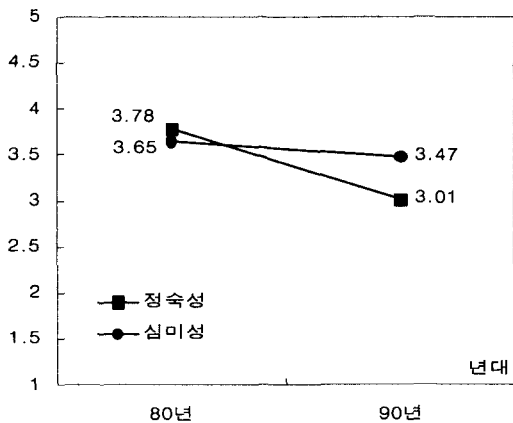
1980, 1990년대의 시대변화가 의복의 정숙성 및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시대 변화가 의복의 정숙성 및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와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

<표 1> 시대와 의복행동의 이원 변량 분석표

변량원	요인	의복행동			
		df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주효과 년대(80년, 90년) 의복행동(정숙성, 심미성)		2	108.67	54.335	187.38***
		1	95.54	95.54	329.96***
		1	13.13	13.13	45.34***
2원상호작용효과 년대×의복행동		1	38.42	38.42	132.69***

에서 보면 한국 여대생들은 80년대에는 의복의 미적 측면보다는 정숙한 측면을 보다 더 중시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는 의복에서 정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80년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의복에 두는 정숙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심미성은 80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대가 바뀌어도 심미적인 측면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데 반하여 정숙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정숙성에 대한 의식이 왜 바뀌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림 1> 년대와 의복행동간의 상호작용효과

## V. 논 의

의복에서 정숙성은 눈에 너무 띄지않는 보수적인 옷의 색상이나 디자인, 신체노출, 몸에 밀착된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복식에

서 정숙성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에는 80년대에 비하면 정숙성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간의 다양성보다 유사성이 더 많아지면서 문화간에 나타나는 의복차이의 소멸을 가져오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정숙치 못한 것으로 보는 배꼽티나 핫팬츠 등 90년대 중반의 의복형태들은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보다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어떤 부분이 정숙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탈권위적인 미의식

문화의 영역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치로서의 예술성이 질실히 요구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야도 있다. 문화에 있어 예술성과 윤리성은 반드시 비례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는다.<sup>23)</sup> 그렇다면 오늘날 신세대의 윤리성(도덕적 규범)은 의복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선 신세대들의 미에 대한 의식은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정형화된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심지어 안감, 다리미처리도 없이 만드는 탈구성적 의복 다시 말하면, 형태자체도 의복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 있는가 하면<sup>24)</sup> 특히 1990년대 들어 착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옷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아웃자켓이 과감한 디자인의 이너(inner)와 묘한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비치는(see-through)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너가 노출

되는 과감한 스타일이 유행되어 속옷은 남에게 보여져서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전통적인 미개념에서 일탈된 표현이다. 또한 색채선택에서도 종래의 색에 대한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 즉 기성세대들이 주로 선택하는 유사색 배색이나 전통적인 배색에서 벗어나 강렬한 원색끼리, 또는 위험한 보색끼리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색상에 대한 미적 개념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신세대에게는 통념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고 최근에는 정형화된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우며 구체적인 개성표현을 미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5)</sup> 그래서 전통적인 미개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20대의 탈권위적인 미의식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 젊은이들의 정숙성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인간의 행위가 상황의존적이라는 사회학자의 견해<sup>5)</sup>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신세대가 의복에서 갖는 정숙성 개념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의식의 차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살아온 사회적 배경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기성세대는 문자세대로 물질적 빈곤시대를 살면서 전통적인 미를 추구한데 반해 신세대는 시각매체 세대로 풍요한 시대를 살면서 현실에 바탕을 둔 감각적인 미와 그 표현을 중시하였다. 또한 근대화과정에서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향이 약화되고 신세대의 미적 기준 또한 서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식 풍조까지 만연하여 미적가치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신세대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탈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이미 지배적인 상황에서 성장하였다. 부모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엄한 유교적 교육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전통적, 권위주의적 가치관에 묶어놓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허용하고 준비시킴으로서 신세대들이 탈권위적인 특성과 현실지향성을 갖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세대의 탈권위주의는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거부 혹은 전통적 예절과 격식

에 대한 거부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도 나타난다.<sup>26)</sup> 이와같이 신세대의 미의식은 고정된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즉 미적 권위에 대한 거부로 우리사회의 변화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과 현실인식이 그대로 의복에 반영된 포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림 2> Street Fashion

좌·우 : SamSung Fashion Institute, 1996, p.38·36.

중 : Fashion Leader, 1966, p.196.

## 2. 다양성 추구

탈권위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 세대의 또 하나의 특성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의복규범을 해체시키거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즉 퓨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엮고, 기존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해체의 시도는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한다고 보았다.<sup>27)</sup> 복식에서는 전통적이고 증성화된 개념을 거부할 때 내부로부터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복식의 파괴적 해체의 표현은 의복을 파괴하고 찢음으로서 전통적 예절과 실용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적 고정관념을 해체하였다.<sup>21)</sup> 또한 의복자체가 피부의 개념으로 표현되면서 의복의 신체적 밀착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구분의 개념을 깨뜨렸다. 이는 기존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려 의복에서의 정숙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신세대들은 복식을 통해서 성, T.P.O, 아이템, 소재, 문양, 착장방식 등을 해체시키는가 하면 또한 이질적 요소들을 조합하거나 그 모든 장르를 혼합하여 새로운 패션장르를 만들어 내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착장방법 중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끼리의 조화로써 소재는 물론이고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 진팬츠에 정장 자켓, 다양한 색상의 넥타이까지 동원한 차림새는 이젠 출퇴근복으로서도 별 무리 없는 패션이 되었다. 또한 아웃웨어(outwear)와 이너웨어(innerwear)가 교체되는가 하면 드레스에 베레모를 착용하기도 하고, 또 정장에 썸(sack)을 매기도 하고 케시미어 롱코트에 청바지차림이 나타나기도 한다.<sup>28)</sup> 그런가 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드레스도 드레스 하나만을 입기보다는 기본형의 드레스 위에 카디건을 묶어 입는가 하면 짧은 팬츠나 미니스커트에 군화나 부츠를 신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여 다른 아이템과의 조화로 모던한 룩을 만드는 등<sup>29)</sup> 퓨전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옷이라는 형태에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고자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이와 같이 신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화를 지향하는 세대들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퓨전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이들은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공부를 한다. 최근에는 한 건물 안에서 식사도 하고 음악도 감상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클래식과 가요의 만남, 재즈와 국악과의 만남, 한국, 불란서, 이태리,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새로운 형태로 융합시킨 이른바, 극적 없는 음식, 격식을 파괴하고 상식을 벗어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같은 과감한 융합은 한가지 장르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장르를 혼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존규범이 깨어져 혼란이 오지만 또다른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된다. 이같은 다양성 추구현상은 그들 세대의 개방성과 유연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으며<sup>10)</sup> 의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숙성을 고수하려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Street Fashion

좌·중 : SamSung Fashion Institute, 1996, p.35·42.  
우 : Ce'ci, 1996, 3(8), p.216

### 3. 개성추구

신세대들은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살아온 세대로 고정된 것을 싫어하고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찾는가 하면 유행을 추구하는 타인지향성을 갖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새로운 유행의 물결속에서 자신만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패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활동적인 것을 추구하고 남과 다르게 보이려는 개성표현을 위해 특정제품의 유행을 고집하지 않는다. "내 감각대로, 내 개성대로 툭툭 튀는 나의 표현", "나는 세계의 중심", "천만번을 변해도 나는 나 이유는 없다"라는 신세대를 내세우는 광고<sup>29)</sup>에서도 나타나듯이 최근 의상에서는 색상과 디자인이 파격적인 스타일이 인기를 끄는가하면 미니나 청바지 차림의 획일적인 유행을 거부하고, 단정한 정장의 틀에서 완전히 이탈된 모습이었다. 물론 한복차림을 비롯한 단정한 차림도 볼 수 있지만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통이 넓은 바지에 벨벳을 한 차림이나 초미니 스커트 또는 핫팬츠에 준 배꼽티, 팬티같은 반바지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림 4>에서와 같이 셔츠를 허리에 묶거나 어깨에 두르거나, 소매가 없고 목을 깊게 판 티 셔츠를 입은 대담한 노출차림, 진 패션의 경우도 무릎이나 다리부분을 찢어 노출하거나 접어 입거나, 바지 끝에 올을 풀어 너털거리게 하거나, 무늬가 있는 등 같은 진이



라도 자신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형형색색의 염색머리, 대담한 색조화장, 시대에 따라 유행했던 각종 신발의 출현으로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옷차림은 각양각색으로 이렇다 할 정형이 없다. 이와 같이 파격적인 의상과 몸짓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 세대만의 다양한 패션은 기성세대들의 시각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옷차림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행한다<sup>10)</sup>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감대는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가? 1983년 교육부의 제도개혁이었던 교복, 두발 자율화조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게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이 동시에 수용되었다. 80년대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강조되는데 반하여 1990년대는 다른 시기보다 진보적인 경향<sup>30)</sup>을 보였다. 특히 90년을 전후하여 복고풍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현재와 과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패션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전통 복고주의풍에서 첨단유행까지 혼재하는 이러한 현상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sup>31)</sup> 신세대의 개성, 자기표현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조치로 신세대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유니폼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제복착용에서 오는 사고의 경직성 및 획일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되었고 모험주의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이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신세대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옷과 머리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 감각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외에 20대가 개인지향적이고 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T.V, 위성방송, 국제적 유통, 국제여행 등 문화적 범지구화 현상으로 그동안 시·공간상의 제약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활동의 장이 확장되면서 이질적인 문화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국제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변동과정 속에서 개방적인 사고 형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북돋아준 부모들의 양육방식도 개인지향적 특성을 야기<sup>15)</sup>시켜 개성을 찾는데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영향요인은 우리문화에서 전통적인 의복규범의 정체성유지를 어렵게 하고 의복에서 더 이상 정숙성

의 강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4> Street Fashion

좌·중 : SamSung Fashion Institute, 1996, p.35·36.

우 : Ce'ci, 1996, 3(8), p.216.

#### 4. 감각지향적 특성

신세대의 의복에 나타난 변화를 개성적인 자기표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잡지나 TV의 상업주의적인 의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감각주의적인 성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감각주의적 성향은 신세대의 소비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90년도에 대학에 들어온 신세대들은 600원짜리 라면을 먹은 후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1000원짜리 고급커피를 마실수 있는 집단이다.<sup>25)</sup> 모순되어 보이는 이같은 소비형태는 젊은 세대의 감각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생활을 즐기는데 분위기나 서비스 등 장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감각적인 만족에 가치를 두고 있다.<sup>11)</sup> 이들 세대들은 경제적 풍요속에서 유년기때부터 소비사회의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자율화의 물결속에서 성장하였고 문화적으로도 다종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었던 그야말로 혜택받았던 세대인 것이다.

신한레뷰에서 제시한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4·50대가 과소소비형, 30대가 생활소비형이라면 20대는 감각소비형이라고 특징지었다.<sup>10)</sup> 그들은 없는 용돈을 쪼개서 값비싼 연극을 보러 다니는가 하면<sup>31)</sup> 단순한 생활차원을 넘어서 레저나 스포츠로 인생을 즐기려 한다. 물론 '즐기기 위해 지출한다'는 식의 소

비문화가 젊은 세대 내부에서 일치된 의견은 아니다. 부모세대의 빈부격차는 신세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소비구조도 계층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이들 세대들이 감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들 세대들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던 과거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외양과 디자인 등 패션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의복에서 상품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감성에 맞는지를 중시하므로 선택기준이 자신의 취향에 맞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이들의 감각지향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신세대들은 다양화, 개방화된 사회에 익숙하여 일관성 있는 또는 확실적인 기준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그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과 충동을 중시하여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며, 단순하고 평이한 것에는 쉽게 싫증을 낸다.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록 옷이 노출되어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여 주관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팔 상의와 롱스커트에 부츠 그리고 모자위에 고급처럼 쓴 썸그라스 차림이나 등이 깊게 파인 탑에 악세사리를 부착한 썸을 맨 뒷모습 그리고 여름인데도 목높은 긴부츠에 모자를 쓴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20대의 의복은 물론 헤어스타일, 화장품이나 악세사리 스포츠용품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림 5> Street Fashion

좌 : Ce'ci, 1996 3(8), p.216.

중·우 : SamSung Fashion Institute, 1996, p.35·43.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신세대여대생들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 패션감각세대로 성장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컬러화된 대중예술 그리고 개방화, 자유화가 강조되어온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요인들은 의복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거부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 5. 성 의식의 변화

오늘날 신세대들은 폭발적인 성문화의 범람 속에서 성장하여 성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우리사회에서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70-80%를 웃돌던 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개념은 보다 개방적인 경향을 보여 '사랑한다면 무방하다'는 견해가 62%나 되어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20대의 성문화는 개방성, 일상성을 띠게 되어 뿌리깊은 전통적 가치와의 마찰, 자기주체성의 상실 등으로 적지 않은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sup>31)</sup> 오늘날 성의 개방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초기 근대화과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들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가 보다 자유롭고 감각적이어서 전통적 가치규범에서 거의 이탈했거나 급속히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우리사회는 성의 개방풍조가 만연하면서 복식에서도 에로티시즘적 표현이 나타났으며 에로티시즘이 높게 평가되는 노출 밀착, 비침 등은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여성들은 자기표현을 위해서는 에로틱한 의상착용을 주저하지 않는 대담함을 보인 반면에 30대·40대 여성들의 경우는 유혹·자극적 분위기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즉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에로틱한 분위기의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 정숙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젊은층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고 복식이 사회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들은 90년대 들어 은밀하게 감추어야 할 신체부위의 노출을 통해 80년대보다 더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6>에서와

같이 란제리를 연상시키는 브라탑, 과감한 스타일의 미드리프에 이어 어깨를 드러내는 홀터넥셔츠를 쇼트 팬츠와 함께 코디하여 입거나 배꼽을 드러낸 채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된 케미솔 탑은 보는 것 만으로도 아슬아슬하며 쇼트 팬츠 또는 블랙 팬츠와 코디하여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또한 감추어져 있던 속옷들이 겉옷으로 나타나는 등의 이러한 현상들은 노골적인 반감이나 거부가 일정한 행동으로까지 표출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고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가치관이 해체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물론 20대를 획일적인 시각에서 보기는 힘들다. 많은 젊은이들은 전통적 가치규범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매체세대인데다 감각적인 성풍조를 보도하는 우리사회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로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온 젊은 세대들은 이질적인 문화간의 교류를 통해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현실에 바탕을 둔 미와 그 표현을 중시하였고 외국에서 볼 수 있었던 과다노출 패션을 쉽게 수용함으로써 신세대의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의 표현인 의복에서의 정숙성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IV. 결 론

정숙성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적인 표현이며 장식성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노출 및 은폐된 부위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노출, 은폐 등이 구체화되는 디자인에서 성적 매력을 강조하게 되면 정숙성은 약화된다. 또한 동일 문화권에서도 성이나 연령,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80년대초와 비교하여 90년대의 한국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에서의 정숙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숙성 개념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관련문헌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80년대 한국 여대생들은 의복에서 정숙한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90년대 여대생들은 정숙성에 대한 개념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10여 년동안에 의복착용에서 정숙성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80년대 의복에서 강조되었던 기존의 보수적인 규범이 90년대 들어 해체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90년대 신세대의 의복에서 정숙성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문헌을 통해 고찰한 결과 중요한 요인은 사회변화이고 그 하위요인으로는 탈권위적인 미의식의 변화, 다양성추구현상, 개성추구현상, 감각지향적인 특성, 성의식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성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 상호관련성을 갖고 의복의 정숙성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의 양식인 정숙성의 표현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숙성의 기준도 또한 변하게 된다. 복식은 과거의 전통위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왔다. 그 변화의 속도나 폭은 상당히 빠르고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노출된 의복이나 성이 불분명한 의복 등 의복의 정숙치 못한 측면들을 신세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기성세대는 우리 규범에서 일탈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차이는 신세대의 의복에 나타난 정숙성의 약화현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수용하느냐 일탈행위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즉 사회변화가 진행되면서 바뀌어져 나타난 의생활의 모습이 사회적 관심의



<그림 6> Street Fashion  
 작·중·우 : SamSung Fashion Institute, 1996,  
 p.35·36·38.

초점이 된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이를 억제하려는 힘이 작용하는 반면에 그러한 변화를 자극하고 가속화하려는 힘도 공존하게 된다.<sup>3)</sup> 한국사회의 변화정도는 한동안 이 두가지 힘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도덕적 규범에서 오는 이러한 갈등은 의복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층의 의복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보수성향이 약화되고 규범이 보다 다양화되면서 신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규범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는 그들 준거집단에 동조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복에서 정숙성의 약화현상은 단순히 유행의 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세대들이 착용하는 의복에서 정숙치 못한 모습 즉 반감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의복의 노출 등이 비록 반문화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표현은 서구사회(문화)를 통한 우리 시대의 변화된 도덕관념과 가치관의 갈등이 의복형태에 반영된 것으로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심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매스미디어나 광고 등의 매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부추겨 왔다. 또한 탈권위적이고 개방화되고 자기감정을 중시하는 특성들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90년대 신세대들은 새로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대와 사회에는 공통된 문화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복규범은 우리사회가 처한 시대적 맥락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그들이 의복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시적 관점에서 의복의 정숙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신세대의 의복행동을 보는 방법 즉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가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Kefgen, M. Specht, P.T(1981).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3rd ed.). N.Y : Mcmillan Publishing company. 68-70.
- 2) White, L.A(1959). The Concept of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61: 227-251.
- 3) 김경동(1985).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69.
- 4) 강경자(1986).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가치관과 의복선택 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31-42.
- 5) Alexander, J.C. & Philip Smith.(1993).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Society, 22(2), 156.
- 6) 강경자(199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1)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27-38.
- 7) 강경자(1994).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2) -기본욕구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8(2), 180-188.
- 8) Mannheim, K.(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 9) 박재홍(1996). 한국 신세대의 세대경험과 의식구조. 현대사회, 14(1), 24-43.
- 10) 신한레뷰(1993). 제16권2호(여름호) : 14-23.
- 11) 조용수(1996). 한국의 신세대혁명. 서울 : L.G 경제원. 41.
- 12) 박재홍(1993). 신세대 개념과 사회적 위치. 광주일보사, 예향 : 3, 50-57.
- 13) 한완상(1994). 신·구세대의 문화논쟁. 문화일보, 5월.
- 14) 김영모(1982). 한국사회학. 서울: 범문사.
- 15) 박재홍(1995)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 질적접근 -한국 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38, 문학과 지성사.
- 16) 염혜정, 조규화(1992). 한국신세대의 복식양식 -1980년대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3), 233-242.
- 17) 동아일보(1992.5월). 21세기로 편다 -새사조 새삶...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18) 동아일보(1995.2월). (생활)기획 연재.
- 19) 동아일보(1995.5월). (생활)뉴스.
- 20) 이상혜(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35, 325-341.
- 21) 김주영(1990).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1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261-1274.
- 22) 중앙일보(1996.5월). 남 시선끄는 차림 '좋아요'.
- 23)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371.
- 24) 김주영(1998).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제2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1), 3-17.
- 25)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하권).

- 한국일보사, 35, 117-121.
- 26)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호).
  - 27) 나채희(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박유리, 유수경(1998). 한국 신세대여성의 패션특성에 관한 고찰 -1990년대부터 1995년까지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1), 14-24.
  - 29) 청소년 개발원(1994).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 신세대의 특성과 역할 -신세대 그 유명한 실체는? -. 47-51.
  - 30) 박찬부, 강혜원(1994). 한국복식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 23-43.
  - 31)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상권).
  - 32) 권미정(1993). 의상디자인의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3) Sumsung Fashion Institute(1996). Fashion Forum - 96.7월 Street Fashion. -서울, 대구, 광주, 부산-. 35-43.
  - 34) Ce'ci(1996). 중앙일보사, 세시 3권 8호, 216.
  - 35) Fashion Leader(1996). Fashion Leader사, 1권 12호, 196.